



생명보험의 이해 3: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평준보험료

오병국 연구원

■ 생명보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 필요함.

- 사망 혹은 생존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생명표의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함.
- 생명보험 계약은 보통 장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자를 고려해야 하며 보험료 계산 시 사용되는 이자율을 예정이율이라 함.
- 보험상품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험금액 혹은 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함.

■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가 산출됨.

-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순보험료(net premium)라고 하며, 예정사업비율¹⁾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부가보험료(loading)라 함.
-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한 것을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영업보험료(gross premium)라 함.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영업보험료

■ 한편, 보험계약시 일시에 납입하는 순보험료를 일시납순보험료라고 하며, 여러 번에 걸쳐서 납입하는 순보험료를 분할납순보험료라고 함.

■ 분할납순보험료 중 매회 납입하는 보험료가 동액일 경우 이를 평준보험료(net level premium)라고 함.

1) 생명보험사업에 필요한 경비 즉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급비로 나뉘어짐. 보험모집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보수 지급비용, 점포나 기타에 시설에 요하는 비용, 선전 혹은 광고비 등이 신계약비에 포함되며,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운용, 기타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유지비라고 하고, 보험료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비라고 함.

- 보험료를 수리적으로 계산할 때 사망의 발생, 이자의 수입 및 사업비의 지출이 미리 예정된 계산 기초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래의 전 보험기간 동안의 수입(=보험료)의 현가와 지출(=보험금)의 현가가 같도록 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함.
-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x년 만기 정기보험에 y년 동안 매년 가입하여 납입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보험료를 자연보험료라고 하고, x년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y년 동안 일정하게 납입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보험료를 평준보험료라 함.
 - 보험회사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거의가 평준보험료이고, 대부분 월납의 형태임.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평준이면 월납평준보험료,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가 평준이면 연납평준보험료라고 함.
 - 자연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매년 보험료가 다르며, 평준보험료는 사망률의 변화에 관계없이 매년 보험료가 일정한 것이 특징임(<그림 1>참조). [kiri](#)

〈그림 1〉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